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논리 구성의 특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eature of Logical Construction between Feng Shui for the Housing and the Grave

박정해 Park Jeonghae¹⁾

Abstract

In this study, by examining literature materials which show the feature of Feng Shui for the housing and the grave, each feature in logical construction is to be compared and analyzed.

In order to pursuit convenience, Feng Shui had been used for bringing the wind and the water representing natural phenomenon into life. And the logic in Feng Shui had become necessary for traditional human life. Feng Shui for the Housing (Yang house) was for his or her life time, and Feng Shui for the Grave (Yin house) was for after his or her death. Each had its own position in traditional life. Even there was no point of division between the two, the essence of the two theories have been separated from each other by being theorized and systematized. Today, to foster Feng Shui,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logical and rational aspect in it. Because Feng Shui is the most eco-friendly and the lowest destructive to nature for development, its logic may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modern society.

Keywords: Feng Shui for the Housing, Feng Shui for the Grave, Maintenance of Natural Situation, Publications of Feng Shui, Theory of Favorable Change in Fortune

1. 서론

풍수는 바람과 물로 대변되는 자연현상을 인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어 그 편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풍수는 사는 동안에는 양택풍수의 모습으로, 죽은 후에는 음택풍수의 모습으로 각각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풍수의 기본적인 활용형태이기도 한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에 대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 사람과 관련한 풍수를 양택풍수라 하고 죽은 자를 위한 풍수를 음택풍수라 하지만, 구체적인 특징과 차이를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용·혈·사·수·향(龍·穴·砂·水·向)을 살피는 데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단지 보국(保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양택지는 주로 넓은 평지를 선호하는 반면에, 음택지는 주로 산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 풍수서조차도 음택서와 양택서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그 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같지 않은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활용성과 특징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양택풍수는 주택과 사무실, 상가, 공장 등과 같이 산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그 활용성을 가진

1)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Adjunct Prof., Dept. of Architecture, Hanyang Univ. | azzy777@hanmail.net

다. 반면에 음택풍수는 죽은 자를 위한 무덤으로, 죽은 자를 좋은 곳에 묻음으로써 후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기감응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곧 죽은 자도 산자와 같이 잘 모셔야 한다는 효사상이 바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기감응론과 효사상에 바탕을 둔 음택풍수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고, 흑세무민하는 사술로 매도되고 음택풍수가 가진 장점들, 특히 친환경적인 장점마저도 사장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최창조는 풍수를 묘 터나 잡는 데 이용되는 허접한 현실인식에 대해 비판하였다(최창조 1992: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 연구는 현대인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이론과 논리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 특히 음택풍수와 양택풍수의 구성 논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전영수 2006).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내각(2010)은 동기감응론을 고찰하고 음택풍수와 양택풍수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박시익(2005)은 풍수이론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변석기(2013)는 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풍수적으로 접근하였다. 김종명(2007)은 양택가상학의 공간배치에 대해 논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논리 구성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특징을 소개한 문헌자료들을 살펴보고, 양택풍수와 음택

풍수의 역사와 논리 구성의 특징을 서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만의 풍수서가 전해지지 않아 주로 중국의 풍수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역사와 풍수서

현재 전해지는 주요 풍수서는 <표 1>과 같이 중국 청대(清代)에 정리된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와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수록되었으나, 황제의 명에 의해 주요 서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이 풍수서들은 음택풍수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택경(宅經)」과 「양택십서(陽宅十書)」, 「황제택경(黃帝宅經)」 등은 양택풍수서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고 속에는 음택풍수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흠정사고전서」와 「흠정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풍수서가 일부 존재한다. 특히 「지보경(至寶經)」과 「신보경(神寶經)」, 「천보경(天寶經)」, 「승생비보경(乘生祕寶經)」, 「경림국보경(瓊林國寶經)」, 「오성작맥정변명도(五星捉脈正變明圖)」, 「형법장도결(形法葬圖訣)」, 「총총색(聰總索)」, 「감여잡저(堪輿雜著)」 등은 소개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택풍수서와 음택풍수서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당시의 사회 인식과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은 크다.

표 1_ 「흠정사고전서」와 「흠정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된 풍수서 비교

「흠정사고전서」 수록 풍수서	「흠정고금도서집성」 수록 풍수서
「택경(宅經)」, 「장서(葬書)」, 「감룡경(撼龍經)」, 「의룡경(疑龍經)」, 「장법도장(葬法倒葬)」, 「청낭서(靑囊序)」, 「청낭오어(靑囊奧語)」, 「천옥경(天玉經)」, 「영성정의(靈城精義)」, 「최관편(催官篇)」, 「발미론(發微論)」	「황제택경(黃帝宅經)」, 「구천원녀청낭해각경(九天元女靑囊海角經)」, 「장서(葬經)」, 「관씨지리지몽(管氏地理指蒙)」, 「고본장경(古本葬經)」, 「청낭오지(靑囊奧旨)」, 「십이장법(十二杖法)」, 「박산편(博山篇)」, 「십육장법(十六葬法)」, 「지보경(至寶經)」, 「신보경(神寶經)」, 「천보경(天寶經)」, 「승생비보경(乘生祕寶經)」, 「경림국보경(瓊林國寶經)」, 「오성작맥정변명도(五星捉脈正變明圖)」, 「형법장도결(形法葬圖訣)」, 「감여만흥(堪輿漫興)」, 「총총색(聰總索)」, 「감여잡저(堪輿雜著)」, 「장경의(葬經翼)」, 「수룡경(水龍經)」, 「양택십서(陽宅十書)」

1. 양택풍수의 구분과 양택풍수서의 역사

양택풍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주서(周書)」 ‘소고(召誥)’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 이러한 양택풍수의 개념에 대해 하효흔(何曉昕)은 「중국풍수사」에서 이성적 탐구를 시작하는 단계라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음택풍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무술적 감성을 바라고 구하는 단계로(하효흔 2008: 18), 아직 이성적이지 못한 주술적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풍수는 발전을 거듭하여 지형이나 지질 등을 고려하게 되었고, 건축물의 입지 선정을 비롯한 좌향 설정과 같은 여러 요소가 추가되면서 한층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즉, 형세론과 이기론으로 양분되었고, 음택풍수와 양택풍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양택풍수는 다시 양택풍수와 양기풍수로 크게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양택풍수가 집과 건물의 터를 잡는 좁은 영역을 주로 다룬다면, 양기풍수는 도시와 같이 보다 넓은 영역의 입지를 다루는 풍수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를 「산법전서」 ‘서언’에는 땅의 음양을 상관하여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지만, 작게는 집을 짓고 묘를 축조하는 일³⁾이라 하였다. 따라서 양택풍수는 주로 개인적이고 작은 영역의 공간 구성과 밀접하다면, 양기풍수는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넓은 의미의 도시풍수와 관련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모두 산사람의 활용-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보국의 차이와 용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양택풍수라는 큰 틀에서 논하기도 하지만, 양택풍수와 양기풍수로 분류하기도 한다.

양택풍수는 음택풍수와 달리 보다 넓은 보국을 가질 것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는데, 보국 크기의 차이는 곧 음택풍수와 양택풍수를 구분 짓는 가

장 큰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청룡과 우백호와 같은 사격과 물길 등의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과 특징적인 모습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보국을 구성하는 좌청룡과 우백호에 의해 형성된 모습은 장풍국과 득수국, 그리고 장풍득수국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그 특징적인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장풍국은 주변 사격에 의해 둘러싸인 지형 조건을 가진 곳으로 개성이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둘째, 득수국은 사격에 의해 보국이 만들어지지만, 물이 보다 큰 지형적 특징을 충족하게 된다. 평양이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장풍득수국은 사격과 물이 서로 어우러진 곳으로 형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은 도시입지 선정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도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풍수 논리는 현대 도시사회의 지형 조건과 특징들을 설명하는 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풍수서는 지형 조건과 시대상이 골고루 반영되면서 발전하였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장소는 상고 시대부터 방위와 지세를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선정되었다(김혜정 2009: 67). 주(周)가 건립되기 이전에도, 선조인 공유(公劉)⁴⁾의 기록을 보면 여러 사람의 거주지가 특정한 지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특히, 산세와 수세를 고려하여 특정한 장소로 선정되었던 거주지는 진대(晉代)에 이르러 길흉론과

2) “惟二月既望 越六日乙未 王朝步自周 則至於豐 惟太保 先周公相宅 越若來 三月丙午黜 越三日戊申 太保朝至於洛 卜宅 厥既得卜 則京營 越三日庚戌 太保乃以庶殷攻位于洛 汭.”

3) “則相其陰陽 觀其流泉 大而建都立邦 小而卜宅營葬”(樂九升 2008: 1).

접목(김해정 2009: 68)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풍수의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양택풍수서가 출간된 시대별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오경(靑烏經)」과 「금낭경(錦囊經)」이 출간된 이후 양택서가 처음 등장한 것은 「한지(漢志)」 ‘형법가(形法家)’에 나타난 「궁택지형(宮宅地形)」 20권에서다. 그 후 양택서가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수대(隋代)에 이르러서인데, 이때 발간된 양택서로는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소개된 「팔경팔권(宅經八卷)」과 「택길흉론(宅吉凶論)」 3권, 그리고 「상택도(相宅圖)」 8권 등이 있다(魏徵等撰, 1982: 1039).

당대(唐代)에는 양택서의 출간이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양택서로서 후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황제택경」이 출간되었다. 특히 당대의 양택서에는 「구당서(舊唐書)」 ‘경적지(經籍志)’ 등에 소개된 「황제택경」과 「오성택경(五姓宅經)」 등이 있다. 송대(宋代)에는 주로 유학자들에 의해 풍수서가 출간되는데, 이 양택서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송대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양택서가 출간되었는데, 「상택경(相宅經)」과 「택체일작수경(宅體一作髓經)」, 「음양이택가(陰陽二宅歌)」, 「이택상점(二宅相占)」, 「오음삼원택경(五音三元宅經)」, 「음양택경(陰陽宅經)」, 「음양택경도(陰陽宅經圖)」, 「음양이택도경(陰陽二宅圖經)」, 「황제팔택경(黃帝八宅經)」, 「회남왕견기팔택경(淮南王見機八宅經)」, 「왕징음양이택집요(王澄陰陽二宅集要)」, 「황석공팔택(黃石公八宅)」(劉昫等撰, 1975: 2044) 등이 있다.

원대(元代)에는 저명한 도시계획가로 활동한 유병충(劉秉忠)이 있었다. 유병충은 원대 대부분의 도시를 직접 계획하였으며, 「옥척경(玉尺經)」을 저술

했다. 따라서 유병충은 뛰어난 풍수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대의 풍수서로 가장 의미 있는 저술이 등장하는데 바로 「노반경」이다. 「노반경」에는 각 공정의 길일양진(吉日良辰), 문의 크기, 건축구조물 및 가구의 크기, 제작요점, 잡귀를 내쫓고 재앙을 물리쳐주는 부적과 주문 그리고 주술용 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원대에 출간된 양택서로는 「신간음양보감극택통서(新刊陰陽寶鑑克擇通書)」, 「신간음정이론(新刊陰陽正理論)」 등이 있다.

명·청(明·淸)시대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족문화를 다시 일으켜세우기 시작한다. 풍수는 명대 황제와 상류층 인사들의 총애에 힘입어 어느 정도 규범화되는데(하효훈 2014: 220), 이때 출간된 양택서는 그 수가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많았다. 즉, 「양택십서」와 「양택집성(陽宅集成)」, 「상택경찬(相宅經纂)」, 「양택회심집(陽宅會心集)」, 「양택촬요(陽宅撮要)」, 「택법전서(宅法全書)」, 「양택요결(陽宅要訣)」, 「입택부(立宅賦)」, 「양택삼요(陽宅三要)」, 「양택수방소길(陽宅修方召吉)」, 「택법정론전(宅法定論全書)」, 「팔택단결(八宅斷訣)」, 「양택지장(陽宅指掌)」, 「상택신편(相宅新編)」, 「양택입산단결(陽宅入山斷訣)」, 「팔택명경(八宅明鏡)」, 「택보이언(宅譜邇言)」, 「양택편람(陽宅便覽)」, 「양택애중론(陽宅愛衆篇)」, 「도천곤반주(都天滾盤珠)」 등이 있다. 이때에 출간된 풍수서는 형세론을 중심으로 한 서적과 이기론 중심의 서적, 그리고 음택풍수와 양택풍수가 서로 조화를 이룬 서적들이 각각의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택서들이 소개되고 전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대 건륭제의 「사고전서(四庫全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주나라의 조상은 후작부터 공류까지는 태(邵)에 살고 있었으며, 4세 공류에 이르러 빈으로 천도하였고, 13세 고공단보에 이르러 기산(岐山)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15세 문왕과 16세 무왕에 의해 주나라가 건국되었음(김해정 2009: 67).

2. 음택풍수서의 역사

음택풍수의 출현은 옛 사람들의 생사관과 조상숭배 사상에 기인한 바가 크다. 즉, 조상숭배사상과 예법의 발전은 음택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춘추 전국시대에 정립된 혼백(魂魄)의 개념은 「춘추좌씨전」이 최초의 기록이 되었으며,⁵⁾ 「예기(禮記)」 ‘예운(禮運)’은 더욱 심화되고 명확한 근거로 작용한다.⁶⁾ 이러한 혼백의 개념은 결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주었고, 유체수음설(遺體受蔭說)과 같은 동기감응론은 음택풍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죽은 자의 유체를 잘 보존하면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믿음은 음택풍수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되었고 음택풍수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음택풍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물이자 풍수서는 「청오경」이다. 이후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에 의해 「금낭경」이 출간되지만, 이는 「청오경」을 바탕으로 논리를 더한 것이다. 여기에 위대(魏代)의 관략(管輅)에 의해 출간된 「관씨지리지몽(管氏地理指蒙)」도 그 역사성을 더하였다.

이후 당대 양균송의 출현은 풍수이론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양균송은 천문을 끌어들이 풍수서의 구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으며, 수많은 풍수서를 출간하게 된다. 「감룡경(撼龍經)」과 「의룡경(疑龍經)」, 「청낭경(靑囊經)」, 「청낭오어(靑囊奧語)」, 「천옥경(天玉經)」, 「도천보소경(都天寶照經)」, 「일립속(一粒粟)」, 「천원오토경(天元烏兔經)」, 「옥척경(玉尺經)」, 「장법십이장(葬法十二杖)」, 「천옥내전(天玉內傳)」, 「청낭서(靑囊序)」 등이 있다. 이 풍수서들은 양택풍수보다는 음택풍수에 보다 더 중점을 둔

풍수서다.

수대(隋代)에는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소개된 「지형지(地形志)」와 「오성묘도(五姓墓圖)」, 「총서(冢書)」, 「황제장산도(黃帝葬山圖)」, 「오음상묘서(五音相墓書)」, 「오음도묘서(五音圖墓書)」, 「오성도산룡(五姓圖山龍)」, 「과묘장부전(科墓葬不傳)」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풍수서는 당대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활용성이 담보되는 풍수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송대(宋代)에는 뇌포의가 활동하던 시기로 「최관편(催官篇)」이 대표적인 풍수서다. 그 외에도 「지보경」과 「천보경」, 「최관편」, 「박산편(博山篇)」, 「고대풍수술주평(古代風水術注評)」, 「발미론(發微論)」, 「낭금(囊金)」, 「지리신법(地理新法)」 등이 있다.

원대의 풍수서는 수대와 마찬가지로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활용성마저도 떨어진다. 이때 출간된 풍수서로는 「노반경」과 「신간음양보감극택통서(新刊陰陽寶鑑克擇通書)」, 「신간음양정리론(新刊陰陽正理論)」, 「팔택주서(八宅周書)」 등이 있다. 그나마 「노반경」의 출간은 부족한 풍수서의 가치성을 상쇄하는 모습이다.

명·청시대에 출간된 풍수서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 시대에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진 풍수서들이 발간되었다. 「인자수지(人子須知)」와 「천기회요(天機會要)」, 「탁옥부(琢玉斧)」, 「설심부(雪心賦)」, 「지리옥수경(地理玉髓經)」, 「지리오결(地理五訣)」, 「옥척경(玉尺經)」, 「나경해(羅經解)」, 「나경정문침(羅經頂門針)」, 「선택정종(選擇正宗)」, 「나경비규(羅經秘竅)」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풍수서들이 등장한다.

5) “及子產適晉 趙景子問焉曰 伯有猶能爲鬼乎. 子產曰 能 人生始化曰魄 既生魄 陽曰魂 用物精多 則魂魄強 是以 有精爽至於神明.” “及子產適晉 趙景子問焉曰 伯有猶能爲鬼乎. 子產曰 能 人生始化曰魄 既生魄 陽曰魂 用物精多 則魂魄強 是以 有精爽至於神明”(春秋左氏傳, ‘召公上’ 7年).

6) “及其死也 升屋而號 告曰 臯某復然後 飯腥而直孰 故天望而地藏也 體魄則降 知氣在上 故死者北首南鄉 皆從其初.”

III.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구성

표 2_오행의 분류

분류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
精色	靑	赤	黃	白	黑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常	仁	禮	信	義	智
五事	貌	視	思	言	聽
五帝	太昊	炎帝	黃帝	少昊	顛頊
八卦	震 ≡ 巽 ≡	離 ≡	坤 ≡ 艮 ≡	乾 ≡ 兌 ≡	坎 ≡

1. 풍수 구성의 핵심요소: 음양오행론

풍수가 논리적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음양오행론과의 접목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음양오행론은 풍수논리를 체계화하였고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실례로 음택풍수와 양택풍수의 분류조차도 음양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관자(管子)」 ‘오행(五行)’에는 “양기에 통달하면 천도를 섬길 수 있으며, 음기에 통달하면 지리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였다(김필수 외 2006: 554). 이는 음양의 논리를 통해 양택풍수는 천기에 의존하고 음택풍수는 지기에 의존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음양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서주(西周)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양론의 관념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서주 때 백양부(伯陽父)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어(國語)」 ‘주어(周語)’에 음양은 자연 변화 중의 두 가지 작용 또는 힘이라 하였다.⁷⁾ 여기에 더해 「장자(莊子)」 ‘즉양(則陽)’ 편에서 음양의 상보적(相補的)인 관계성을 제시하였다면,⁸⁾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서는 음양의 발생과 변화 과

정을 설명하고 있다.¹⁰⁾ 하지만 우주는 천지음양의 체(體)로 형성되지만, 이 체는 어떠한 작용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노병한 2005: 194),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행설과 결합을 시도하게 된다. 이 오행¹¹⁾은 자연계의 모든 만물을 5개의 큰 종류로 나누어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라고 여긴다(〈표 2〉 참조).

오행의 각 궁위별 특징을 살펴보면, 〈표 3〉의 궁도와 같이 동쪽은 오행으로 목에 해당되고 색깔은 청색¹²⁾이며 문(文)을 대변한다. 오상(五常)¹³⁾은 인(仁)¹⁴⁾이며, 장남을 상징하는 방위로 궁궐에서는 세자궁이 위치한다. 서쪽은 오행으로 금에 해당되고 색깔은 백색¹⁵⁾으로 백호에 해당한다. 무(武)를 대변하고 오상은 의(義)¹⁶⁾에 해당된다. 남쪽의 오행은 화에

7) “故通乎陽氣 所以事天也. 通乎陰氣 所以事地也”(김필수 외 2006: 554).

8) “夫天地之氣 不失其序 若過其序 民亂之也.”

9) “음양은 서로 비추어서 서로 덮기도 하고 서로 다스리기도 한다(陰陽相照 相蓋相治).”

10) “天地之襲精 爲陰陽 陰陽之專精 爲四時 四時之散精 爲萬物.”

11) 오행은 「상서(尙書)」에서 기원하며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학자 추연(鄒衍)에 의해 정립된 논리임. 특히, 「홍제전서(弘齋全書)」 48권 ‘책문오행건(策問五行條)’에는 “오행이란 기운이 하늘에 유행하고 재질이 땅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 수는 5로 기록하고 그 이름은 행(行)으로 뜻을 삼는다(五行者 氣行於天而質具於地者也. 其數之以五爲紀 其名之以行爲義)”고 하였음.

12) “목(木)의 정기는 푸르다(木之精靑).”

13) “오상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다섯으로, 오래도록 행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해야 한다는 상(常)이라고 이름 하였다(五常者 仁義禮智信也 行之終久 恒不可闕 故名爲常)”(蕭吉, 嚴繹 2008: 412).

14) “「한서(漢書)」의 ‘천문지(天文誌)’에 이르기를 歲星(木星)은 사람의五常으로는 인이고 五事로는 모습(貌)이다. 인이 어지러지고 모습이 훼손되면, 봄의 월령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木의 기운이 상하니, 罰星이 세성에 나타난다(漢書天文之云 歲星於人 五常仁也 五事貌也 仁虧貌失 逆春令傷木氣 罰見歲星)”(蕭吉, 嚴繹 2008: 413).

15) “금(金)의 정기는 희다(金之精白).”

표 3_ 구궁도(九宮圖)

≡ 6 北西 金	≡ 1 水 黑玄武 北 智 冬	≡ 8 北東 土
≡ 7 金 白虎 西武義 秋	5 中央 노랑 土 信	≡ 3 木 靑龍 東文仁 春
≡ 2 南西 土	≡ 9 火 赤朱雀 南禮 夏	≡ 4 東南 木

해당되고 색깔은 붉은 색¹⁷⁾으로 주작이 상징동물이며 오상은 예(禮)¹⁸⁾다. 북은 오행으로 수에 해당되고 오상은 지(智)¹⁹⁾에 해당되며 색깔은 검은색²⁰⁾에 해당되어 현무가 상징동물이다. 중앙은 오행으로 토이고 오상은 신(信)²¹⁾에 해당되고 색깔은 노랑색²²⁾이다. 오행 속에서 존귀한 토의 황색은 황제의 전용의복 색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령사상은 현무와 주작, 그리고 청룡과 백호와 같은 각각의 방향성을 대변하고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각 구역을 숫자로 표시하면, <표 3>과 같이 가운데 열 아래에서 위로 1, 5, 9 좌측 열 아래에서 위로 하면 8, 3, 4 우측 열 아래에서 위로 하면 6, 7, 2이다. 이

러한 숫자들을 아무렇게나 더하면 15가 나온다. 이를 고대인들은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배치와 분포만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음양설에 근거하면 기수(奇數, 홀수)는 양, 우수(偶數, 짝수)는 음이다. <표 3>을 보면 구궁각의 4개 각(4개의 부 방향)은 모두 우수로 음에 해당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4개 정 방향과 중앙이 모두 기수이다. 양에 속하여 사람이 살기에 알맞고 특히 남부와 중앙(9, 5)이 가장 좋으며,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도 다 그런 이치로 배치하게 된다.

동북, 동남, 서북, 서남 4개 구역은 우수로 음에 속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중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 중간 1, 5, 9와 좌3 우7은 양수로 사람이 살기에 알맞아 중요 건축물을 건설한다. 특히, 5는 양수와 음수의 조화를 통해서 태어난 수로 음양의 기운을 다가지고 있어서 중수(中數)라 한다. 또한 1과 9의 중간에 위치하는 수로 중심과 조화, 균형을 의미하고 생명과 우주의 질서에서 비롯되는 역동적인 자연의 리듬을 나타낸다. 5토는 만물을 기르는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5황극이라고도 하는데 황극은 천자, 왕, 임금의 의미한다.

이러한 구궁도의 원리가 궁궐 공간 구성에 도입된 배경에는 하늘의 중심에는 북극성이 있고, 지상의 중

16) “太白은 사람의五常으로는 義고 五事로는 말(言)이다. 의가 허물어지고 말이 없게 되면 가을의 월령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금의 기운이 상하니 별이 태백에 나타난다(太白於人 五常義也 五事言也 義虧言失 逆秋令 傷金氣 罰見太白)”(蕭吉, 嚴繹 2008: 414).

17) “화(火)의 정기는 붉다(火之精赤).”

18) “熒惑星(화성)은 사람의 오상으로는 예이고 오사로는 보는 것(視)이다. 예가 무너지고 보지 못하게 되면, 여름의 월령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화의 기운이 상하니 별이 형혹성에 나타난다(熒惑於人 五常禮也 五事視也 禮虧視失 逆夏令 傷火氣 罰見熒惑)”(蕭吉, 嚴繹 2008: 413-414).

19) “辰星은 사람의 오상으로는 지이고 오사로는 듣는 것(聽)이다. 지혜가 없고 듣지 못하게 되면 겨울의 월령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수의 기운이 상하니 별이 진성에 나타난다(辰星於人 五常智也 五事聽也 智虧聽失 逆冬令 傷水氣 罰見辰星)”(蕭吉, 嚴繹 2008: 414).

20) “수(水)의 정기는 검다(水之精黑).”

21) “鎮星은 사람의 오상으로는 신이고, 오사로는 생각하는 것(思)이다. 仁義禮智信으로써 주인을 삼고 貌言視聽은 생각(思)으로써 바름을 삼으니, 네 가지 일을 모두 잃게 되면 진성토성이 움직이게 된다(鎮星於人 五常信也 五事思也 仁義禮智 以信爲主 貌言視聽 以思爲正 四事皆失 鎮星乃爲之動)”(蕭吉, 嚴繹 2008: 414).

22) “토(土)의 정기는 누렇다(土之精黃).”

심에는 왕(王)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에 사신²³⁾이 둘러싸 중심의 왕을 보좌하는 구조를 형상화한 것이 구궁도(九宮圖)이기 때문이다.

2. 양택풍수의 구성 논리와 양택가상학

풍수는 땅의 형상을 통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길흉화복의 한 형태로 인식한 동양의 자연관이다. 이러한 사고의 바탕에는 모든 자연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천인합일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풍수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이해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문화체계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풍수사상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이치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양택풍수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양택풍수 논리 구성 배경에는 음양론이 자리한다.

「황제태경」에는 “무릇 택(宅)이란 음양이 결합된 근원이고, 사람이 지켜야 할 인륜의 법도”²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무릇 집이란 음양이 결합되어 사람이 살아가는 인륜의 법도가 집약된 결정체적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단순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하는 집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음양론은 동양과 서양의 분류점이 되었고,

각각의 특징 속에 자리하여 음양의 논리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 서양이 태양을 기준으로 한 양력을 주로 사용하였다면, 동양은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차이만큼이나 도시 건설에서도 서양과 동양은 다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 논리가 있었다.

특히, 「역경(易經)」에는 도시 건설의 기본조건으로 ‘이수난공(易守難攻)’을 들고 있다. 즉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공격하기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등장한 배경도 주변 환경적인 요인이 현실에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동양의 역사에서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함께, 영토 빼앗기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영토를 지켜야만 했던 몸부림이 반영되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그 무엇인가가 절박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형 조건 요소로 등장한 길흉론과 발복론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것이다. 절박한 상황 요인이 반영된 길흉론을 좀 더 확대하고 극대화하여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박정해 2013: 135). 이를 기존의 풍수서와 접목시켜 길흉론과 발복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든다. 이러한 특징들을 「양택십서」에서는 ‘논택외형(論宅外形)’이라는 단원을 통해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²⁵⁾

양택풍수는 인간의 생존 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택 길지를 통해 인물의 잉태와 출

23) 사신(四神)은 사수(四獸)라고도 하는데, 중국 고대의 음양오행설에서 기인한 무덤의 방위 신을 말함. 사수는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 네 방위 신을 말하며 이를 무덤에 그려놓은 것이 사신도(四神圖)임. 고대인들은 우주 만물의 생성이 오행성(五行星)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음. 그러므로 목·금·토·화·수의 오행에 따라 오방색(五方色)을 배설(排設)하였고, 무덤이나 관의 사방을 수호하는 청룡·백호·현무·주작의 사수가 네 방위를 담당하는 신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여겼음.

24) “夫宅者，乃是陰陽之樞紐，人倫之軌模。”

25) “人之居處 宜以大地山河 爲主其來脈 氣勢最大關係 人禍福最爲切要 若大形不善 總內形得法終不全 故論宅外形第一。”

생, 그리고 자라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양택풍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길지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을 배치하게 되는데, 어떤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였느냐는 혈처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공간의 배치와 형태, 실내구조와 배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양택풍수의 구성요소다. 이를 양택가상학(陽宅家相學)이라고도 부르는데, 양택가상학은 터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먼저 터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공간 구성과 건축물의 형상을 결정하는 영역이다. 이것이 음택풍수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양기풍수의 중요 고려사항으로는 배산임수와 좌향, 물길과 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 ‘복거총론’에서 지리와 생리, 인심, 산수라는 각각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양택풍수의 고려사항이 주로 자연이 갖는 특징적인 모습에 천착하였다면, 이중환이 주장한 내용들은 자연과 인간의 삶터가 갖는 다양한 특징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보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자연환경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원리까지 제시한 이중환의 주장은 한발 앞선 모습을 보인다.

양택풍수의 영역은 개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주택풍수와 사무실과 같은 업무용 풍수, 그리고 상업적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조건을 따지는 상업풍수, 그리고 도읍과 같은 도시풍수, 마을 입지를 살피는 촌락풍수, 그리고 실내의 공간 구성과 장식을 꾸미는 인테리어 풍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풍수 영역에는 각각의 논리를 바탕으로 합당한 풍수적 특징이 필요하다. 양택풍수의 중요 논리 구성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양분되는데, 내부적 요인에 대한 논리 구성은 양택삼요론과 동·서사택, 그리고 구성론 등이 있다. 먼저 양택삼요론은 조정동의

「양택삼요」에서 나온 이론으로 문·주·조(門·主·灶)를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인식한 데서 출발한다. 문은 실내로 들어오는 모든 기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따라서 가장 앞에 두었다. 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니 주택에서는 안방이고 회사라면 사장실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주가 되는 공간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다음으로 조는 누구나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방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주·조와 같은 세 개의 중요 공간이 서로 상생의 원리 속에서 자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동사택과 서사택의 논리도 앞의 「양택삼요」를 바탕으로 각각의 방향에 자리해야 하는 논리다. 여기에는 구궁도의 오행이 상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론이다. 즉, 동사택은 북쪽의 오행 수와 동쪽과 동남쪽의 오행 목은 수생목으로 상생관계를 가진다. 다시 동쪽과 동남쪽의 목과 남쪽의 화는 목생화의 상생의 논리를 구성한다. 반면에 서사택은 중앙과 북동쪽 그리고 남서쪽의 토와 서쪽과 북서쪽의 금이 토생금하는 상생의 논리가 이론적 배경을 형성한다. 이를 「양택삼요」에는 다음과 같이 그 원리를 설명한다.

“오로지 대문과 고대방의 상생은 곧 길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극은 흉한 곳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이 양택을 보는 필연의 이치다.”(조정동, 김경운 2003: 24)

이와 같이 동사택과 서사택의 논리에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이분법만이 존재했다. 또한 극히 단순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균송의 구성론²⁶⁾을 끌어들이어 공간 구성의 단순한 논리를 보완코자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공간 구성의 논리성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며 동사택과 서사택이라는 이분법적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았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양택삼요로 대변되는 각각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입지가 갖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합리성을 갖기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는 해석이 보다 타당성을 갖는다.

3. 음택풍수와 발복론

음택풍수는 음양오행에 바탕을 두고 논리적 발전을 통해 형세론과 이기론이 고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음택풍수의 논리는 「청오경」과 「금낭경」을 바탕으로 논리적 발전을 이루었고, 동기감응론을 바탕으로 한 발복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청오경」은 장사는 길흉에 관계되는 것으로, 뼈와 해골에 길한 기운이 감응하면 사람에게 많은 복을 미친다²⁶⁾는 논리를 구성한다. 물론 「금낭경」도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유해가 기를 얻으면 음덕을 받는다고 하면서, 장사(葬事)라는 것이 뼈에 기를 들게 하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음덕을 주도록 하는 법²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택풍수에서 동기감응론에 대한 인식은 「청오경」과 「금낭경」의 영향이 컸고, 어떤 풍수서도 동기감응론에 바탕을 둔 발복론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을 수밖에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나 자신의 마지막은 본인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 의해 갈무리²⁹⁾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보다 존중되는 갈무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후 처리가 장례형식과 절차를 통해 극히 정중히 다루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이를 승화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을 보장 받는 방법이 효(孝)사상에 바탕을 둔 장례의식이었다. 하지만 효사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성이 존재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풍수자들은 효사상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동기감응론을 통해 발복론과 길흉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후 주자는 이러한 특징들을 아우르는 장사의 목적을 제시하는데, 곧 장사는 조상을 생각하며 유체를 갈무리³⁰⁾하는 것이라 규정하게 된다. 주자의 '산릉의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자손으로서 그 조상의 유체를 장할 때에는 반드시 중히 하고 삼가면 성경의 마음에 이르니 이로써 안정되고 굳건하며 오래 먼 대책을 삼습니다. 만일 그 형체가 온전하고 이에 신령이 편안함을 얻으면 그 자손은 성하고 제사는 끊이지 않으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³¹⁾

주자의 주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만약 흉한 곳에 장사를 한다면, 이는 발복론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친다는 논리를 다음과 제시한다.

26) 貪狼星을生氣라 하고, 巨門星은 天乙이라 하며, 祿存星을 禍害, 文曲星을 遊魂, 廉貞星을 五鬼, 武曲星을 延年, 破軍星을 絕命, 左輔와 右弼을 합쳐서 輔弼이라 함.

27) “藏於杳冥 實關休咎. 百年幻化 離形歸真 精神入門 骨骸反根 吉氣感應 累福及人.”

28) “人受體於父母, 本骸得氣, 遺體受蔭. 故葬者 反氣納骨 以蔭所生之法也”(錦囊經, 機感編).

29) “藏之爲言藏也”(朱子文集大全 卷15, 山陵議狀).

30) “所以藏其祖考之遺體也”(朱子文集大全 卷15, 山陵議狀).

31) “以子孫而藏其祖考之遺體也 則必致其謹慎誠敬之心 以爲安固久遠之計. 使其形體全而神靈得安 則其子孫盛而祭祀不絕 此自然之理也”(朱子文集大全 卷15, 山陵議狀).

“가령 그 형신(形神)이 안정치 못하면 이에 자손 또한 사망·절명(死亡·絶滅)의 우환이 있으니 심히 두렵습니다.”³²⁾

주자는 형신이 편안할 경우와 불안할 경우를 대비시켜 제시하면서, 조상의 유체를 잘 모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는 단순한 논리 구성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제시한 발복론을 바탕으로 한 동기감응론이 당위성을 갖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이 대비되는 논리는 동기감응론과 발복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산릉의장’의 주장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산릉의장’은 조선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효사상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부모를 비롯한 조상의 장사를 지내는 지침서로 그 입지를 확고하게 된다. 단순히 조상의 산소를 편안한 곳에 안장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계기도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풍수비판자들의 주공격 대상이 되는 구조였고, 인간의 사후세계조차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복론의 원흉으로 매도되기에 이른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과 대비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결국엔 지나친 발복론이 부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음택 자체가 갖는 문제점이라 할 수는 없다.

IV.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수는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논리와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각 시대별로 다양한 풍수서를 출간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논리적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아직도 구체성과 체계성을 확립하는 데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풍수가 성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풍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 해왔다. 그리고 원시인들이 안성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택과 음택의 구분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음택풍수와 양택풍수로 분류한 것으로, 그 본질은 다를 수 없다. 이에 대해 「의룡경」 ‘의룡십문(疑龍十問)’에서는 “양택은 편안한 거처여야 하며, 양택이나 음택은 그 본질이 하나이며 또한, 양택과 음택 사이에 후손에게 주는 음덕의 역량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였다(양균송 2009: 293). 「설심부(雪心賦)」에서도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차이는 단지 명당의 넓이가 넓고 좁은 차이만이 있을 뿐³³⁾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입지 선정에서도 음택풍수와 양택풍수는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용도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용도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용·혈·사·수·향이 라는 풍수 논리의 적용과 배산임수³⁴⁾와 같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연친화적 사상에서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도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가장 큰 차이는 보국과 혈처의 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택풍수는 보국과 혈처가 커야 하지만, 음택풍수는 보국과 혈처가 작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룡경」 ‘의룡십문’에는

32) “使其形神不安 而子孫亦有死亡絶滅之憂 甚可畏也”(朱子文集大全 卷15, 山陵議狀).

33) “若言陽宅 何異陰宮 最要地勢寬平 不宜堂局逼窄.”

34) 「重校地理新書」에서 “宅南有河 且北高 吉也. 宅南有河 北有丘 吉”이라 하여 배산임수가 갖는 장점을 제시하였음.

표 4_ 음택풍수와 양택풍수의 특징 비교

구분	대상	영향	차이점	발생 배경	비고
양택풍수	산 자	직접적	보국이 넓다, 혈이 큼	직접 관련	이기론 위주로 논리 구성
음택풍수	죽은 자	간접적	보국이 좁다, 혈이 작음	관련성 적음	형세론과 이기론이 골고루 발전

양택은 인가의 수용을 위해서 넓어야 하며,³⁵⁾ 음택은 외진 곳에 있어도 된다고 하였다.

둘째, 양택풍수서와 음택풍수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풍수서는 음택과 동기감응론을 바탕으로 발복론과 길흉론에 방점을 둔 풍수서들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형세적 관점과 이기론적 관점 그리고 나경의 활용에 따른 다양한 술법조차도 음택풍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론적 구성을 살펴보면, 양택풍수가 주로 이기론을 활용하였다면, 음택풍수는 형세론과 이기론을 동시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양택풍수는 입지 선정과 관련한 내용들이 약간은 언급되고 있으나, 주로 이기론에 의존한 공간 구성에 방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양택풍수서의 논리 구성과 술법은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음택풍수서의 영향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음택풍수서는 형세와 이기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입지 선정과 아울러 좌향의 배치와 같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활용용도와 주체의 차이를 보인다. 즉, <표 4>와 같이 산 자와 죽은 자라는 점과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도 양택풍수는 산 자가 활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음택풍수는 죽은 자가 받은 지기를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다섯째, 풍수의 발생 배경과 관련성에서도 양택풍수가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원시인들이 안전한 삶을 찾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음택은 안전한 삶터라는 개념이 사후세계와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양택풍수보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풍수서의 역사성을 살펴보면, 최고의 풍수서인 「청오경」과 「금낭경」조차도 음택풍수의 특징요인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택풍수서가 보다 오랜 역사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음택풍수서와 양택풍수서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데, 어김없이 길흉화복과 발복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청오경」과 「금낭경」을 비롯한 거의 모든 풍수서에서 길흉화복과 발복론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의룡경」 ‘하편’에는 “무릇 사람은 산천의 기가 피워낸 꽃과 같은 존재인데 하늘이 성현을 낼 적에 때에 맞추어 태어나게 했다. 나라를 세우거나 중흥시킨 임금에게는 반드시 그 전에 그 조상의 훌륭한 무덤이 있기 마련인데, 아주 오래가는 산천의 영기를 얻은 자리”³⁶⁾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의 자존감과 아울러 음택풍수를 통한 동기감응론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용문으로 활용

35) “大凡陽宅要穴大”(양균송 2009:293).

36) “大抵人是山川英 天降聖賢爲時生 祖宗必定有山宅 占得山川萬古靈”(양균송 2009: 273).

되고 있다. 이는 풍수를 논하는 데 길흉화복과 발복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논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주자조차도 ‘산릉의장’에서 “형신이 안정치 못하면 이에 자손 또한 사망절멸의 우환이 있으니 심히 두렵다.”라고 하여 극히 현실적 상황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만일 그 형체가 온전하고 이에 신령이 편안함을 얻는다면 그 자손은 성하고 제사가 끊이지 않으니 이는 자연의 원리”³⁷⁾라고 하여 당연한 등식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주자의 주장은 성리학적 사고가 큰 의미를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메커니즘의 규명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풍수논리의 귀착점에는 음택풍수를 바탕으로 한 길흉론과 화복론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양택풍수서와 음택풍수서의 구성논리를 살펴보았다. 현재 전하는 주요 풍수서는 청대에 정리된 「흙정사고전서」와 「흙정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풍수서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택풍수서와 음택풍수서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당시의 사회인식과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은 크다.

양택풍수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주서」 ‘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음택풍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물이자 풍수서는 「청오경」이다. 이 풍수서들은 각 시대적 상황 요인들을 중요하게 반영하였고, 논리적 발전과 후퇴 그리고 출간 서적의 수량 증가와 감소 등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풍수서들은 당시의 학자와 관료들에 의해 출간되었기 때문에 시

대 상황이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시대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당대 양균송의 출현은 풍수서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수대와 원대는 풍수적으로 퇴보하는 시기라 분류할 수 있다. 송대에는 유학들에 의해 풍수가 유가사상과 접목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명·청시대의 풍수서는 다양성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현대에도 활용성을 갖는다.

음양오행론은 이미 한대에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풍수가 논리적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음양오행론은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음양오행론이 풍수논리를 체계화하고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풍수의 구성은 사는 동안에는 양택풍수의 모습으로, 죽은 후에는 음택풍수의 모습으로 각각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양택풍수를 크게 양기풍수와 양택풍수로 구분하는데, 양기풍수는 도시 건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반면에 양택풍수는 양택 길지를 통해 인물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자라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을 혈처에 배치하게 되는데, 어떤 목적과 의미에 따라 혈처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공간의 배치와 형태, 실내구조와 배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양택풍수의 구성요소다.

반면에 음택풍수는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논리적 발전을 통해 형세론과 이기론이 고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음택풍수의 핵심 논리는 동기감응론을 바탕으로 한 발복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음택풍수의 논리 구성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동기감응론에 바탕을 둔 발복론에 치우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음택과 양택의 본질은 하나로 입지 선정에

37) “使其形體全而神靈得安 則其子孫盛而祭祀不絕 此自然之理也”(朱子文集大全 卷15, 山陵議狀).

있어서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용도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차이점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택풍수서와 음택풍수서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둘째, 양택풍수가 주로 이기론을 활용하였다면 음택풍수는 형세론과 이기론을 동시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활용 용도와 주체의 차이를 보인다.

넷째, 풍수의 발생 배경과 관련성에서 양택풍수가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다섯째, 음택풍수서가 보다 오랜 역사성을 가졌다.

이와 같이 풍수는 활용성을 바탕으로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논리를 구축하며 풍수서를 출간하였다. 풍수 논리는 시대적 상황과 특징들을 반영하였으며,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양택풍수의 논리는 현대 도시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인 논리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토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삼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중명. 2007. 양택가상학의 공간 배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방대학원대학교.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2006. 管子. 서울: 소나무.

김혜정. 2009. 양택 풍수지리의 방위관: 「택경(宅經)」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8권, 2호: 65-83.

노병한. 2005. 陰陽五行思惟體系論. 서울: 안암문화사.

박시익. 2005. 풍수지리 이론의 과학적인 해석과 응용방법. 동아시아문화와예술 2집: 1738-4850.

박정혜. 2013. 정족산 사과의 입지환경. 민속학연구 33호: 125-146.

변석기. 2013. 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풍수론적 연구: 운정신도시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양균승. 2009. 감룡경·의룡경. 김두규 역. 서울: 비봉출판사.

이내각. 2010. 풍수지리학의 동기감응론 고찰: 풍수지리상 음택과 양택의 현대적 활용방법. 동방논집 3호: 289-316

전영수. 2006. 한국의 현대건설에 적용된 풍수(Feng Shui)에 관한 연구: 1995년에서 2005년의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운대학교.

최창조. 1992.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서울: 민음사.

하효훈. 2014. 중국풍수사. 태극풍수지리연구회 역. 서울: 논형. 國語. 欽定四庫全書本.

葉九升. 2008. 地理大成山法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雪心賦. 奎章閣本.

蕭吉, 嚴繹. 2008. 五行大義(上). 김수길, 윤상철 역. 서울: 대유학당.

陽宅十書. 古今圖書集成本.

王玉德. 2006. 尋龍點穴. 北京: 中國電影出版社.

劉昫等撰. 1975.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魏徵等撰. 1982. 隋書. 北京: 中華書局.

周書. 欽定四庫全書本.

朱子文集大全. 奎章閣本.

何曉昕, 羅雋. 2008. 中國風水史. 北京: 九州出版社.

黃帝宅經. 兩江總督采進本.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논문 접수일: 2015. 1. 20
- 심사 시작일: 2015. 1. 28
- 심사 완료일: 2015. 2. 11

요약

주제어: 음택풍수, 양택풍수, 보국(保局), 풍수서, 발복론

본 논문에서는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특징을 소개한 문헌 자료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논리 구성의 특징을 서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바람과 물로 대변되는 자연현상을 인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한 풍수논리는 인간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사는 동안에는 양택풍수의 모습으로 죽은 후에는 음택풍수의 모습으로 각각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의 구분점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로 분류한 것으로 그 본질은 다를 수 없다. 풍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풍수가 가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의 부각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최소한의 파괴를 바탕으로 한 개발 논리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